

| 저자초청 강연회 - 발표자료 |

초청강연 “기적 아닌 날은 없다”

- 강위원 저자(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공동체, 농촌 그리고 마을복지

기적 아닌 날은 없다



강 위 원 살림꾼

여민동락공동체

contents

여민동락이
사는 법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이
하는 일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여민동락이 사는 법

여민동락이 사는 법



국민건강 정책, 생활·사업, 자치·마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민동락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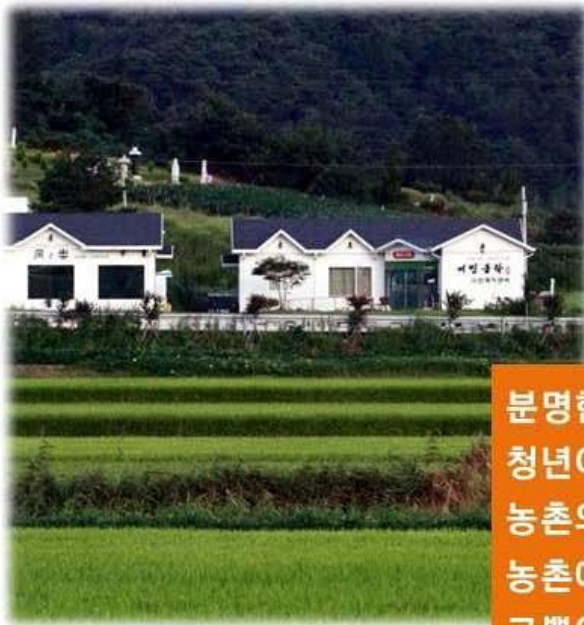
여민동락이 사는 법



세부부의 귀촌,
그것이 시작이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한건 좋은 삶에 대한 철학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
농촌의 재생과 부흥을 꿈꾸는 일,
농촌에서 공익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그뿐이다.



온전한 마을살이의 시작은
'인사' 와 '수다'



관계맺기와 품어주기



가난하면 연대하고,
연대하면 묘안이 생기는 법



왼손에는 수첩을,
오른손엔 걸레를,
입가에는 미소를.



현장의 요청대로 맞춰 가면서
 하나씩 최선의 성실로
 임하는 수밖에.....



주민들을 존엄하게 대하면,
 주민들도 존엄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나눔' 은 힘이 세다



아침마다 어르신들께
 큰절을 드린다.
 절을 드리는 일은,
 절 받는 이에게
 “저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 한다.



농사를 책으로 배운
 도시 촌놈의
 태평농법(?)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귀를 씨 뿌리고
 싹 트고 줄기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 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부산함을 앞지르지 못한다.



마을과 사람과 땅과
 어울려 한 몸이 되자는 뜻.
 여민동락의 첫 마음이다.



농사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노동이자
 생명을 학습하는 고된 수행이다.



이 땅을 지켜온
 선배 농사꾼들에게
 날마다 고개를 숙이는
 반성으로.....



공동체의 마중물
 '월요학당'



오묘한 행복
 '10원짜리 커피자판기'



어떻게 살아야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모습,
 여민동락의 미래와 희망이다.



머리가 아닌
손발로 사는 삶.

여민동락이 하는 일

여민동락이
하는 일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복 일자리를.



복지와 경제의 만남



송편을 빚는 일도
 주민들의 마을살이를
 방해하거나 농사를
 놓지 않게 하는 데
 신경을 쓴다.



제도권 기업이 아닌
 마을기업



좋은 뜻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유능해야 한다.



할매손에도 봄은 오려나?



송편 들인들 위한
행복한 퇴임식은?



이문이 남지 않는
마을가게, '동락점빵'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터가 아니다.



존재 자체로
마을을 이롭게 하는 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방, '이동장터'



중고 탑차는
사연을 싣고.....



뿌리가 튼튼하면
당연히 꽃은 핀다.



사회적협동조합,
동락점빵.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하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마을살이의 꽃이다.



생의 끝자락에 외롭지 않게



사람과 사랑을 잇는
 공동체 학습장,
 버거운 일이나
 그 뜻만큼은 쏠쏠하다.



마을학교의 궁극적 목표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



돈에 의존하는 복지를
 넘어서



마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면서



마을학교는 이미 풍년



비닐하우스는 농사꾼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몰래산타' 대작전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 발농사 감독,
텃밭 매니저.



농토는
 농민들 자부심의 전부다



발은 밭으로 쓰고,
 논은 논으로 써야 한다.



정직한노동으로
땅과 함께한
영원한농사꾼



한미한살림살이지만
아이들에게 지갑을 열어
용돈을 나누셨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절실해진다.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학교가 있어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가난한 자에 대한 존엄



마을에 아이들이 늘고 있다



온 마을의 경사, 통학버스



문화의 아궁이, 마을체육관



학교 운동회가 아니라,
‘마을대동회’



단기 주거형,
농촌여관이라도.....





머뭇머뭇 왔다가
 은은하게 스며들기를.....



감 사 합 니 다 .

